

# 도내 461명 선수, 전국체전 출전

코로나19 여파로 고등부만 치러져 종목별 메달·상장만 수여돼... 전북, 60여개 메달 획득 예상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도내 461명의 선수가 전북 체육의 명예를 걸고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6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2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체전이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경북 일원에서 펼쳐진다.

도내에서는 461명의 선수들을 비롯해 지도자와 임원 등 약 700명이 전북을 대표해서 전국체전에 나선다.

이번 전국체전은 코로나19 여파로 대학·일반부는 열리지 않고 고등부만 치러지며, 각 시·도 종합순위는 책정하지 않고 종목별 메달과 상장만 수여된다.

이번 체전에서 전북 선수단은 약 60개의 메달(금·은·동)을 획득할 것으로 전망했다.

육상의 김윤서(전북체고)와 역도의 임병진(순창고)은 다관왕이 예상되며, 단체종목에서는 전북체고(자전거)와 이리여고(펜싱)가 우승권이다.

또한 레슬링의 김경태(전북체고)와 유도 김근영(영선고), 태권도 유희서(전북체고), 수영 조현재(전북체고) 등도 금메달 가능성이 높다. 쌍둥이 선수들의 활약도 기대해 볼 만하다. 수영의 홍승원-홍승천(전북체고), 농구의 은주영-은주현(전주고), 조정의 김경표-김원표(전북체고)가 주인공이다.

이밖에도 핸드볼 정성원-정장원(형제), 자전거 박진영-박진경(자매), 체조 설치훈-설치현(형제) 등도 전북 체육의 위상을 드높일 것으로 보인다.

전북체육회는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 스포츠과학센터와 선수트레이너를 현장에 파견할 예정이다.

스포츠과학센터는 선수들의 심리 안정을 위해 경기 전 컨디션 등을 지원하며, 선수트레이너들은 육상과 역도, 레슬링, 펜싱 태권도 선수들을 전폭 돕게 된다.

신준섭 사무처장은 "대학·일반부가 치러지지 않아 아쉽기는 하지만 고등부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선보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전북 체육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도민들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금메달 셀카'** 전지희(왼쪽)와 신유빈이 5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의 루사일 스포츠아레나에서 열린 2021 ITF-ATTU 아시아탁구 선수권 여자 복식 결승에서 홍콩의 리호칭-두호이켄을 물리치고 우승, 시상대에 올라 금메달을 목에 걸고 셀카를 찍고 있다. 전지희-신유빈은 결승전에서 홍콩을 세트스코어 3-1(11-5 7-11 11-3 11-4)로 꺾고 메이저대회 여자 복식 첫 우승을 갈라냈다.



태권도진흥재단과 대전과학기술대학교는 지난 5일 태권도원 일여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 국기 태권도 진흥·보급 위해 협력

태권도진흥재단, 대전과학기술대와 협약 체결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과 대전과학기술대학교(총장 이효인)는 지난 5일 태권도원 일여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응환 이사장과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이효인 총장 등이 참석한 업무협약에서는 '국기 태권도 진흥 및 보급을 위한 협력, 연계 가능한 연수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지원 협력'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태권도를 수련·체험할 수 있도록 태권도진흥재단이 지원 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이효인 총장은 "국기 태권도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며 "우리 대학 차원에서 그리고 태권도진흥재단과 협력해 태권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응환 이사장은 "올해로 개교 81주년을 맞은 대전과학기술대학교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태권도 수련 및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라며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서 국기 태권도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주=전문선기자

## 황희찬, EPL 파워랭킹 7위로 '경총'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연착륙에 성공한 황희찬(울버햄튼)이 영국 매체 스카이스포츠가 매긴 파워랭킹에서 7위에 이름을 올렸다.

6일(한국시간) 스카이스포츠가 내놓은 파워랭킹에 따르면 황희찬은 6011점으로 무려 161계단이나 상승해 7위에 자리했다.

황희찬은 지난 2일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2021~2022시즌 EPL 7라운드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울버햄튼의 2-1 승리를 이끌었다.

독일 분데스리가를 떠나 임대로 울버햄튼 유니폼을 입은 황희찬은 3골을 기록 중으로 단숨에 팀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했다.

손흥민(4536점)은 37위에 이름을 올렸다. 3일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에서 1도움을 기록했다. 또 상대 자책골이었던 두 번째 골을 유도하는 돌파와 패스로 승리를 이끌었다.

둘은 EPL 사무국이 선정한 7라운드 베스트11에 나란히 포함됐다.

스카이스포츠 파워랭킹은 골 도움, 유효슈팅, 태클 승패 등 35가지 통계에 대해 선수에게 부여되는 점수를 바탕으로 매긴다. 1위는 모하메드 살라(리버풀)다. /뉴시스



## 9일 개막 프로농구, 비수도권 20% 입장

수도권 구단인 삼성·SK·오리온·인삼공사·KT는 무관중

창원 LG는 구단 방침 따라 홈 개막전만 허용 이후 관중 없이

남자 프로농구를 주관하는 KBL이 오는 9일 개막하는 2021~2022 프로농구 관중 입장과 관련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적용해 수도권 5개 구단은 무관중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을 연고지로 하는 삼성과 SK를 비롯해 고양 오리온, 안양 KGC인삼공사, 수원 KT가 해당한다.

비수도권 지역을 연고지로 하는 원주 DB, 전주 KCC, 대구 한국가스공사, 울산 현대모비스는 최대 20%까지 관중 입장이 가능하다.

단 창원 LG는 11일 공식 홈 개막전만 최대 20% 입장을 허용하고, 이후 일정은 무관중 경기로 운영한다. 구단의 방침이다.

한편 뉴미디어 중계는 네이버 스포티비나 우, 아프리카TV를 통해 이뤄진다. /뉴시스

## KBL, KCC와 오피셜 스폰서 계약

KBL은 6일 KCC와 2021~2022시즌 오피셜 스폰서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오피셜 스폰서는 지난 2018~2019시즌 현대모비스가 리그 스폰서라는 이름으로 처음 참여했으며 경기장 바닥 24초 계시기 인터뷰 백드롭 등에 광고 노출 권리를 갖는다.

고(故) 정상명 명예회장의 각별한 농구사랑으로 유명한 KCC는 그동안 다섯 차례 프로농구 타이틀 스폰서를 맡았다. /뉴시스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